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7월 15일

vol. 126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제 28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개최 “한마음 한뜻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으로 거듭나길”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본사에서 창립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선보 임직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은 선보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모범상, 우수상, 상공회의소 회장상, 우수협력사상, 협력사 우수사원상, 선보웨이 우수자 시상 수여식에 이은 대표이사 창립기념사, 선보인의 10계명 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28년 동안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한국 조선기자재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평했다.

아울러 ‘명품 모듈 생산, 고객만족 극대화, HSE 준수와 녹색사업장 조성, 낭비제거와 조원가 달성,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축하 케이크 절단식과 함께 전 직원이 회사의 발전을 다짐하며 마무리 되었다.

28주년 창립기념 수상순서*

모범상	과장	항지식	1공장	선임팀장	장형구	우수 협력사상	구평1/다성테크 대표 민병주	구평2/허리테크 대표 조상연
구평1공장	차장	표종원	영양공장	팀장	노성담	영도/오성 ENG 대표 김진우	군산/백상 ENG 대표 고기용	
경영지원	과장	양윤모	품질보증	계장	김기호	1공장/생산팀 반장 백선우	1공장/생산팀 반장 박영호	
기술영업	과장	박기덕	전산팀	계장	이옥렬	2공장/생산팀 반장 권병덕	2공장/생산팀 반장 조영록	
설계1팀	사원	허 수	설계2팀	계장	이재호	2공장/생산팀 반장 박찬수	구평1공장/생산팀 차장 양재원	
설계4팀	사원	심승복	설계6팀	차장	민병철	구평1공장/생산팀 부장 권희준	구평2공장/생산팀 사원 권오용	
플랜트영업	차장	이지영	기술연구소	계장	임재호	구평2공장/생산팀 사원 손대석	구평2공장/생산팀 반장 김 술	
1공장	과장	이창면	1공장	사원	김수환	구평2공장/생산팀 사원 김충복	영도/생산팀 사원 김범준	
1공장	사원	정재경	1공장	사원	마이클	영도/생산팀 사원 마진경	영도/생산팀 사원 오민석	
2공장	과장	배승용	2공장	주임	서원수	영도/생산팀 사원 신재식	영도/생산팀 사원 강래원	
3공장	주임	채규만	3공장	사원	김동현	영도/생산팀 사원 이상명	영도/생산팀 사원 김종기	
구평1공장	과장	황영식	구평1공장	기원	서경일	영도/생산팀 사원 송복순	영양/생산팀 조장 이용태	
구평1공장	주임	서봉진	영도공장	계장	이정훈	기술연구소 과장 윤준호	전산팀 계장 이옥렬	
영도공장	팀장	최성호	영양공장	과장	오세준	선보웨이 영도공장 계장 이정훈	사업기획 대리 이기환	
군산공장	계장	고낙범	군산공장	사원	찬다나	설계3팀 과장 문중현	전산팀 차장 안정빈	
상공회의소	플랜트설계	부장	장호신	구평2공장	차장	김광욱	설계6팀 부장 임우택	
우수 협력사상	13공/계정공업	대표	이창재	2공장/영진 ENG	대표	김명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류선 단장 일행 우리 회사 방문



지난 6월 2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류선 단장 일행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해양플랜트 산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직접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김류선 단장 일행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중심에 있는 우리 회사의 현황을 둘러보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해양플랜트 분야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 자격증 지원 등 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에 관한 문답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류선 단장은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은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며, “청취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선보인 복지관 찾아 급식봉사활동 펼쳐



우리 회사는 7월 1일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우리 회사직원 6명이 참가해 식사준비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였다. 식사 후에는 떡과 우유 각 150개와 후원금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선보인들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역에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한 해도 빠짐없이 매달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급식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 1주년 행사 개최 신입사원 가족 초대만찬으로 1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해



1_입사 1주년을 맞은 신입사원들과 해당 가족들은 만찬을 즐기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 2_신입사원 1주년 행사를 취재하러 온 KNN 인터뷰에 답하고 있는 설계팀 정선영 사원 | 3_신입사원 1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최희승 차장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4_신입사원 5인이 열심히 준비한 '최금식 대표이사의 선보공업 창업스토리' 연극이 큰 박수를 받았다 | 5_신입사원과 가족들이 자녀, 형제가 일하는 선보공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가족친화경영'에 따른 것이다. '직원의 가족까지 선보패밀리'라는 인식 아래 가족까지 회사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인증 갱신을 추진 중이다.

창업스토리 무대에 올린 신입사원들, 우리 회사의 옛 공장 탐방하며 애사심 고취



1_장림에 위치한 옛 선보공업 공장 앞에서 밝은 모습의 신입사원들 | 2_옛 공장 투어를 떠나기 전 최금식 대표이사의 성공스토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 3_연극에 배우로 출연한 신입사원 5명 옛 선보공업 공장 사무실에서 연극을 재연하고 있다

7월 2일, 신입사원 1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금식 대표이사의 창업스토리에 대한 연극 '작은 거인을 꿈꾸며'를 무대에 올려 최고의 호평을 받았던 신입사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연극 속에 등장한 옛 선보공업의 실제 모습을 탐방하기 위해서이다.

신입사원들은 본격적인 옛 공장 탐방을 떠나기 전, 본사 의전실에 모여 최금식 대표이사가 직접 전하는 선보공업의 역사를 들었다. 선보공업은 장림(부산시 사하구)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 남영공업으로 출발하여 지금의 선보공업이 있기까지 장림에서 세 번의 이사를 거쳐야 했는데, 그 공장들을 둘러보았다. 연극 속의 등장인물인 신입사원 5명은 연극 장면을 실제 배경에서 연출해 보기도 했다.

신입사원으로서 옛 선보공업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옛날 공장을 탐방하며 신입사원들은 "막연히 상상만 했던 옛 선보공업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선보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시간여행을 통해 보게 됨으로써 오늘의 선보는 물론이지만 한층 발전된 미래의 선보를 그려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신입사원들에게 "금번 연극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누구나 절박함이 필요하다.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옛 선보공업 공장 탐방을 마쳤다.

무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선보하이텍 군산공장을 소개합니다! - 공장장 | 이규현 상무

지난 호에 이어 본사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자회사를 소개하는 코너를 이어가고자 한다. 'SUNBO FAMILY' 이번 호에서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선보하이텍 군산공장'을 찾아가 보았다.

2014년 군산공장 품질목표

매출 100억 달성 / 생산능률 10% 향상 / 생산 리드타임 20% 감소 / 검사합격률 100% 달성 / 제품 완성도 100% 달성 / 원가절감액 1억 5천만 원 달성 / 고객 불만 처리비용 매출 1억 원 당 50만원 감소 / 실패인건비용 매출 1억 원 당 25만원 감소 / 안전무재해 달성

선보하이텍 군산공장은 12,000평 규모의 대지에 3,000평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군산 현대중공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매출 100억 달성이라는 2014년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땀 흘리고 있다.

군산공장은 작년 한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다. 작년 매출 목표는 60억. 하지만 아쉽게도 일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매출 100억 달성이 목표이다. 상반기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점차 수주 받은 생산물량이 늘어 인원을 충원하기도 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30여 명으로 계속 생산량이 늘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3,000평 규모의 공장에서 100억 매출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군산공장의 모든 직원이 불철주야 합심하여 올해 상반기 큰 매출을 올렸다. 내년부터는 배 척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모든 직원들이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군산이라는 지역은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조선산업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 부문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군산공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목포와 영암에서 온 사람들이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객지생활을 하기 때문에 숙소나 식사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식주 생활은 알게 모르게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군산·영암공장의 공장장인 이규현 상무는 최급식 대표이사에게 직원들의 어려움을 보고한 후 군산공장과 영암공장의 전체 직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행을 결정했다. 상반기에 큰 매출을 달성한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휴가인 셈이다.

제주도 현지에 도착하면 군산공장 직원을 별도로 모아서 이미 영암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공장만들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선포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

다. 영암공장에서는 <금연공장만들기>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해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군산공장에서도 <금연공장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생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산공장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인력난 및 자재조달 등 악조건이 그것이다. 여러 악조건이 겹치다 보면 설 계도 늦어지기 마련이다. 이규현 상무는 이에 대해 "군산공장 직원들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본사에서 설계가 늦더라도 군산공장에 필요한 자재가 미리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군산공장은 점점 안정화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보공업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할 군산공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먹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폭력사범 벌금 대폭 강화



폭력 및 협박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돼,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 범죄의 경우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범행 동기)와 폭행 정도(경미·보통·엄중)에 따라 각각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해 폭행 유형을 모두 9가지로 분류했다.

먹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정도에 따라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거나 차면 중한 폭행에 해당하는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해 범죄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기본 벌금형에 상해 2주에서 1주가 늘어날 때마다 30만~100만원씩 가중처벌받게 된다.

협박 범죄는 협박 내용 경중(輕重)과 실행 가능성, 범행 동기를 고려해 달리 처벌받게 된다. 협박 내용과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협박'은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50만 원 미만, 그렇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협박한 사람이 협박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50만원 미만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5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 수준을 2분의 1로 줄여주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우리 회사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수리합니다!"



우리 회사의 자전거 동호회인 '선보 자전거 모임'에서 자전거 정비에 나섰다. 직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동료애가 발휘된 것이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장으로 이동하는 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자재조달부 황지석 과장은 평소 본사 경비실 옆에 주차 되어 있는 자전거 10여 대가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 있거나 브레이크가 느슨해져 있는 등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자전거 동호회 손정락 회장 및 김동관 총무와 의논하여 동호회에서 자전거 수리를 도맡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자전거에 대해 정비를 진행한다. 이로써 많은 선보인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영도공장 자재조달 | 엄재성 대리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장 파트의 볼트, 가스켓, 사다리 등의 자재를 조달하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Q. 현장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자재를 조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신속하게 자재를 적시적소에 조달하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각 블록에 맞는 자재를 조달하고, 로스나 파손된 자재를 즉시 교체해 주어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Q. 업무에 있어 보람이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모든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가 가장 보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달한 자재가 성공적으로 조달되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 후 선박 검사를 마치고 아무 문제없이

이납품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임하시나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자재조달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서포트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현장에서는 잠깐의 실수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흔히 '아차사고'라고도 하는데,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동료와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Q. 선보 가족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답변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군요. 그러니까, 입사 전에 선보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회사가 튼튼하고 복지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보공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Q.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자재조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재조달은 공정에 차질 없이 현장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재를 조달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다대3공장 SIL팀 | 김동현 사원

「제가 받은 칭찬은 모두 팀원들의 공입니다!」

Q. 선보가족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병역특례로 인연을 맺고 2년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사일런스 부서에서 취부, 용접, 사상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동료들과 함께 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 회사는 워낙 안정적인 회사로 평평이 나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서 밖에 나가 선보공업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로서 상당한 자긍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오늘의 선보가 그만큼 이미지를 이루는데 공헌하신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Q.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칭찬해 주세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특례병에게 모든 잡무를 다시시킬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은 본인이 해결하니 저는 잡일을 하기는 커녕 선배님들의 좋은 기술만 배울 뿐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도 다들 정말 잘해 주십니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일할 수 있어 좋습니다.

Q. 다음 칭찬 주자를 선정해주세요.
다대3공장 SIL팀의 정남교 주임을 칭찬합니다. 항상 재미있고 유쾌한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화내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Q. 이 달의 칭찬 주자로 선정되셨는데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을 받게 되니 저의 성실성을 인정받는 훈장처럼 여겨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직원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해왔는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Table listing birthdays for Daedeok Plant, Daedeok Plant, Gupyeong Plant, and Yeongdo Plant.



입사 기념일

Table listing anniversary dates for Daedeok Plant, Daedeok Plant, Gupyeong Plant, and Yeongdo Plant.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신입 선보인 소개



기술개발1팀 | 차인욱 계장